출장 결과보고서

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12-051호

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신산업도시 포럼 참석 및 중국내 유관기관 방문 조사

2012. 7.

지역발전연구센터
홍진기 연구위원

〈 목 차 〉

1. 출장 목적 ····· 1

2. 출장 개요 ····· 1

3. 주요 활동사항 ····· 2

가. 2012 국제신산업도시 포럼 참석 ····· 2

나. 중국인민대학 岳希明 교수 면담조사 ····· 8

다. 중국과기부 횃불센터 방문 및 면담조사 ··· 10

라. 북경현대자동차 방문 및 면담조사 ····· 12

마. 주중대사관 간담회 참석 ····· 18

1. 출장 목적

□ (국제신산업도시 포럼)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와 베이징대학교의 리이닝 교수 등이 신산업도시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중국의 신산업도시에 대한 중국측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□ (중국과기부 횃불센터) 해외로부터 외자와 선진기술을 흡수하여 중국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구조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횃불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

□ (북경현대자동차)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선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비교·분석

□ (중국인민대학) 한·중·일 산업협력 분야의 전문가인 岳希明 교수와의 면담 조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중국과 일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2. 출장 개요

□ **기간 및 국가** : 2012.6.27(수) ~ 6. 30(토) 중국

□ **출장자** :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홍진기 연구위원

□ **주요 활동**

① (6월 28일 오전) 국제신산업도시 포럼 참석

② (6월 28일 오후) 중국인민대학 岳希明 교수 면담

③ (6월 29일 오전) 중국과기부 횃불센터 방문

④ (6월 29일 오후) 북경현대자동차 방문

⑤ (6월 29일 저녁) 주중대사관 간담회 참석

3. 주요 활동사항

가 2012 국제신산업도시 포럼 참석

□ 개 요

○ 일 시 : 2012. 6. 28(목), 09:00 ~ 12:30

○ 장 소 : Conference Center(F1), Huaxia Four Points Hotel
중국 허베이성 랑팡시* 고안현(固安縣, Gu'an)

□ 포럼 내용

1) <다이얼로그 1부> 주요 내용

◇ 쩐우(발전개혁위원회)

○ 현(縣)지역 경제는 중국의 중요한 개혁과 개방 장소 중 하나

- 소수의 자원기반산업 이외 주요 산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, 인간의 정주환경과 산업개발은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

○ 농부들이 급속히 산업노동자가 되는 등 중국의 산업화 속도는 유럽

에 비해 매우 빠름.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,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.

- 도시화 과정은 베드타운 또는 죽은 도시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적절한 정책이 필요

◇ LI Yining

○ 80~90%의 중국인들이 도시에 산다면, 중국 도시의 생활수준 하락과 사회 혼란이 우려됨

○ 그럼 중국의 도시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?

- 구 도시(old city area) + 신산업도시(new industrial city) + 새로운 농촌사회(newly rural community)가 합해진 독특한 도시화 필요

○ 도시화는 기술 혁신과 동일하지 않음.

- 도시화는 용지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, 필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통일된 계획이 필요

- 좋은 도시계획(수준 높은 기반시설, 문화, 교육 등)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
  → 100% 정부 자금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민간부문, 투자자, 지역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함.

- 카운티 경제 발전이 향후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

◇ Austan Goolsbee

○ 미국의 도시화와 중국의 도시화는 유사한 점이 많음. 미국 역시 농업사회로부터 도시화의 발전 과정을 경험

○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전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,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됨.

○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높은 비용, 빈곤, 교통 혼잡, 환경오염, 범죄율 상승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킴.

-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도시사람들은 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.

- 향후 15년 동안 도시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,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경작지 감소,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.

○ 그러나 중국은 미국 등 20세기 서방 국가들의 산업화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임.

-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특화산업의 침체로 인해 경기하락 등을 경험한 바 있음.
  →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도시화 현상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.

- 도시화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.

○ 도시화는 모든 부유한 나라들이 반드시 겪는 현상 중의 하나임.

- 따라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중국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음.

i) 노동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 계획

ii) 생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의 변혁

iii) 삶의 질에 대한 투자

◇ 토론

○ 인재의 중요성

- 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성공 요인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 여부임.

- 실리콘밸리는 우수한 인재 도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므로 Gu'an은 산업에 적합한 인재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○ 훌륭한 노동력을 어떻게 생산해 낼 것인가?

- 단순히 자본이나 투자의 문제가 아님.

- 교육의 중요성(기반시설보다 사람이 더 중요)
  :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훌륭한 노동력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

○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?

-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농촌 사회에서 산업 도시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,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적응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됨.

○ 3가지 유형의 자본(유형자본, 인적자본, 사회적 자본)이 중요

○ 도시는 3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

i)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계적 도시
ii) 중간 정도의 인구 이동이 있는 도시
iii) 거의 인구 이동이 없는 지방 도시(local city)
: 이 경우 주민들이 의욕을 가져야만 발전 가능, 그렇지 않으면 쇠퇴

2) <다이얼로그 2부> 주요 내용

◇ ZHENG Xinli(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사장)

○ Gu'an 산업도시는 대도시와 접해 있는 중소도시로서 지역 내의 정보, 기술, 인력자원 등을 활용하여 베드타운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함.

○ Gu'an 산업도시는 중국의 산업화, 도시화, 농촌 근대화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산업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한 좋은 모델임.

◇ Xiang Chunling

○ 중국 도시 개발의 두 가지 문제인 베드타운화 현상과 '죽은 도시'를 해결하기 위해, 사람들의 삶에 맞게 산업도시를 구축해야

함.

○ 산업도시에는 산업지역 외에도 사회적, 생태적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이 존재하여야 함. 다시 말해 산업도시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필요함.

i) 산업단지
ii) 생활시설, 교육시설, 의료시설, 주거공간
iii) 생태지역

◇ Shi Zulin

○ 산업 개발이나 도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임.

○ 기업들은 현지 직원 채용을 선호하지만 농민들을 산업근로자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꺼리는 기업들도 많음.

- 새로운 일자리, 새로운 기회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입됨에 따라 지역성(locality)을 유지해 나가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.

-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음.

○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존 거주자들도 나타나고 있음.

◇ Charles-Edouard Bouée

○ Gu'an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함.

i) 장기적인 안목
ii) 차별화: 베이징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Gu'an현이 어떻게 자신만의 특징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
iii) 지속성

나 중국인민대학 岳希明 교수 면담조사

□ 개 요

○ 일 시 : 2012. 6. 28(목), 16:30 ~ 20:30

○ 장 소: 중국인민대학 / 중국 베이징시

○ 면담자: 岳希明(Mr. YUE Ximing)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교수

□ 주요 면담내용

1) 중국의 금융정책 현황

○ 중국은 30여년 전 개혁·개방의 1차 성장방식 전환기에 이어 현대화 성장방식으로 탈바꿈하는 2차 성장방식 전환기에 들어섬.

-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성장모델을 대체하고 노동비용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산업 구조조정,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하는 단계에 접어듦.

○ 당국의 지나친 긴축정책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단계에 이름.

○ 이에 원자바오 총리는 민간자본의 금융 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

촉진책 등을 만들어 은행과 증권, 보험 등 금융회사 증자에 참여토록 하고 제도개혁에도 관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힘.

- 다양한 금융 산업 업종에서 민간자본의 진입은 그간의 독점적 구조를 깨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금융경색증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2) 중국의 금융 및 중소기업 정책관련 연구기관, 전문가 현황

○ 인민대가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이며 재정부 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였음.

- 인민대에서 금융 및 재정 분야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음.

○ 하지만 실제 정책관련 연구는 공무원 발전센터 등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.

* 정부부처마다 산하에 연구원이 있고 공산당 내에도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을 두고 있음.

○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국의 인민은행의 경우, 자체적으로 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.

[중국인민대학 현황 및 특성]

· 1937년 개교하여 75년의 역사를 가졌으며, **공산당 설립 학교 중 가장 오래됨**
- 국가교육위원회 전국중점종합대학 중 하나로, 사회과학계열 명문종합대학
- 법, 경제, 행정 등 사회과학계열에서 북경대학과 대등한 수준
- 전체 학생 수는 북경대, 청화대 정원의 1/3정도 수준

· 인민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**많은 당 간부 및 관료들을 배양**해 왔으며, **재정부의 경우 인민대 졸업자가 가장 많음**

· **재정금융학원은 1997년 통합 설립**
- 중국의 재정·금융 분야에서 최초로 국가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로 승인받음
- 교수진 및 연구 성과 면에서 중국 자본시장분야의 최상위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음
- http://www.sfruc.edu.cn/ or http://en.sfruc.edu.cn/

3) 중국의 특수사항

○ 아직까지 호적제가 남아 있어 대학입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침.

- 호적이 북경으로 되어 있어야 북경 소재 대학입학 및 회사취업이 가능

  * 호적이 북경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북경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음. 북경대 정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 이 중 20%정도만 외지 학생 입학을 허용. 가령, 북경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경대에 들어가려면 500점만 맞으면 되는데, 외지 사람이 들어가려면 650점 맞아야 할 정도로 공부를 더 잘해야 들어갈 수 있음. 법률, 회계, 경제 등 좋은 학과의 경우 북경 호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. 또한, 외지 사람이 북경 내에 집을 사려면 5년 이상 북경 소재 회사에 다녀야 함

  * 단, 인민대의 경우 호적이 북경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며, 졸업 후 취업 걱정이 없음

○ 중국은 소득불균형이 매우 심함.

- 현재 지니계수가 5 정도이며,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.

- 정부 개입이 불평등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.

- 중국에서는 직접세가 적은데, 사람들 저항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게 쉽지 않음. 또한, 간접세가 소득재분배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음.

다 중국과기부 횃불센터 방문 및 면담조사

□ 개 요

○ 일 시: 2012. 6. 29(금) 10:00 ~ 12:00

○ 장 소: 횃불첨단기술산업발전센터 회의실 / 중국 베이징시

○ 면담자: Ms. XIU Xiaoping (부주임)
Ms. QIAN Jinqiu (국제협력처장)
Mr. ZHANG Fenghai (산업클러스터발전처장)
Mr. SUN Jianxin (국제협력처 고급공정사)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중국은 20년 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중국 첨단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'횃불계획'과 농촌지역 신기술 혁명을 위한 '신화계획'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였음.

-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 하였고 계획의 실행을 위해 1990년에 "횃불센터"를 설립하였음.

○ 횃불센터는 200여 명의 직원이 18개의 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신문(1가지)과 간행물을 발행(2가지)하고 있고 산하에 5개의 협회가 있음.

○ 횃불센터에서는 횃불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.

i) 혁신기지 개발

- 88개 첨단 하이테크 산업단지(중관촌은 88개 중 첫 번째 하이테크 단지)
- 35개 소프트웨어 기지, 239개 특화된 산업단지, 896개 인큐베이팅 단지, 58개 무역진흥 관련 기지, 7개 해외 산업단지 운영

ii) 혁신기지 내 기술 상품화 지원 서비스 제공

- 1994년도 중국에서 혁신체제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건 기치가 "기술시장의 육성(기술의 상품화)"임
- 전국에 1,500개 기술시장과 1,800개의 기술 중개기구 설립

iii) 혁신 창업 기금 및 프로젝트 운영

- 중소기업 창업 기금 지원
- 미국에서 엔젤기금으로 불리는 것과 유사
- 작년 기준 38억 위안 투입
- 중점 신제품 사업에 작년 기준 5~6억 위안 투입

iv) 정책 수립

- 첨단 하이테크 산업단지 내 인큐베이팅, 대학 내 창업단지 신설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수립

v) 전국 첨단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

-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'과학기금 융자사업'

○ 현재 횃불센터에서는 "횃불계획"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협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- 현재 세계 20여개 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
-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남아프리카,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전시회, 교류회 등을 직접 주관

○ 횃불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,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둠.

○ 횃불계획의 성과 확산을 위해, 한국을 비롯한 더 많은 국가와 교류하기를 희망하며, 앞으로 한-중 기업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음.

라 북경현대자동차 방문 및 면담조사

□ 개 요

○ 일 시 : 2012. 6. 29(금) 15:00 ~ 17:00

○ 장　소 : 북경현대자동차 제2공장 / 중국 베이징시

○ 면담자 : 김태윤 부사장, 조근희 과장

□ 주요 면담내용

1) 중국 승용차 시장의 산업수요 전망

○ 지난 10년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특히,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24%에 달함.

-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한 2002년 당시에는 연간 수요가 110만대 규모로 국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, 2011년 1,194만대로 9년만에 10배 이상 증가

○ 올해는 유럽경제위기, 유가인상, 작년까지 있었던 다양한 세제혜택 폐지 등을 고려해 성장률 8.9%를 예상하고 있음.

2) 북경현대자동차 현황

○ 50:50의 **한-중 합자회사로서** 매년 발생 이익의 50%는 한국 현대자동차로 송금하고 있음.

* 중국 정부는 자동차를 비롯한 보험, 금융 등 몇 가지 산업에 대해서 외국회사가 단독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. 자동차의 경우 외자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비율이 50%

○ 진출 첫 해 투자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둠.

- 투자비용 2억 1,700만불, 2003년 순이익 2억 5,000만불
- 공장 증설 및 장비 비용을 모두 이익금에서 사용했으므로 부채 제로

○ 총 11개 모델 투입, 현재는 10개 모델 생산 판매 중

- 2002년부터 연간 신형 모델 1~2개 정도 꾸준히 출시

* EF소나타, 엘란트라(국내 아반떼XD), 엑센트(구형 베르나), 투싼, 엘란트라 Yuedong (국내 아반떼HD 개조차), i-30, 베르나(국내 엑센트), ix35(투싼IX), YF소나타 등

- 중국은 시장이 크고 지역별 소득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형이 출시되어

도 구형의 수요 꾸준하기 때문에 신구형 모델을 병행 생산 판매

○ 2012년 5월말 기준 판매누계 357만대 넘어섬.

- 9년만에 외형적으로는 15배 성장, 매출액은 11배 증가
- 2003년 EF소나타 1차종으로 52,000여대 생산 판매, 매출액 10억불 달성
- 2011년 약 740,000대 판매, 매출액 111억불 달성

○ 중국 현지 파트너가 양(자동차 생산대수)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해서 생산대수가 적은 편임.

- 순이익률이 13.4%로 공장 단위로 봤을 때 Top 4 이내에 듦.

○ 현대차그룹은 2010년부터 중국 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

- 중국 내 자동차 그룹별 점유율(2011)
  : 폭스바겐('84년 가장 먼저 중국시장에 진출) 18.5% 1위
  : 현대차그룹(현대-기아) 10.2% 2위
  : GM 10.2%, 니산 6.8%, 도요타 6.7%, 혼다 5.6%

[북경현대자동차]

- 설립 : 2002년 10월 18일
- 위치 : 북경시 순위구(자금성으로부터 50km, 북경수도공항으로부터 10km 떨어져 있어 물류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 점유)
- 사업형태 : **한-중 합자회사** (현대자동차 : 북경기차투자유한공사 = 50:50)
- 직원 : 10,873명, 주야간 2교대 (주재원 109명)
- 생산능력 : 총 90만대(1공장-30만대, 2공장-30만대, 3공장-30만대, 10개 차종 생산)
- 대리점수 : 736개(연말까지 8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임)
  - 판매는 딜러제로 운영. 보통 딜러 한 명당 연평균 판매대수를 1,000대 정도로 보기 때문에, 판매계획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음
- 협력사 : 162개 (한국기업 91개사(56%), 기타 71개사(44%))
- 연혁 :
  - 2002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설립
    현지 파트너의 2.5톤 트럭 생산라인을 개조하여 생산 시작(생산능력 5만대/년)
  - 2003 중국 진출 첫 해 5만 5,000여대 판매
    (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"현대 속도"란 신조어 만들어 냄)
  - 2005년 5월 1공장-생산능력 30만대 증설공사 완료
  - 2008년 4월 2공장 준공
  - 2010년 11월 3공장 건설 (2012년 6월부터 생산 시작)
  - 2011년 4월 YF소나타 생산 시작
  - 2011년 연말 누적판매량 325만대를 넘어섬
- 공장 현황
  - 1공장 현황 : 부지 20만평, 승용차 완성차공장, 2개의 엔진공장, 1개 라인에서 6개 모델을 whole생산, 연간 생산능력 30만대, 시간당 생산대수 66대
  - 2공장 현황 : 부지 35만평, 건물 7.3만평, 승용차 완성차공장, 2개의 엔진공장, 4개 모델(YF소나타, 투싼IS, i30, 엘란트라 Yuedong) whole 생산, 연간 생산능력 30만대, 시간당 생산대수 68대
  - 3공장 현황 : 부지 44만평, 승용차 완성차공장, 엔진공장, 연간 생산능력 40만대 확장 고려, 시간당 생산대수 66대
  - 완성차공장은 '프레스/차체조립/도장/의장' 등 4개의 단위 공장으로 구성
    : 프레스~도장까지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, 주요 장비는 한국에서 들여옴
- 중국 내 사회공헌활동
  - 장학, 문화, 스포츠, 구호, 환경사업 등
    : 내몽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활동 지원
    (작년까지 14억 투자, 1,300명 학생 파견, 3,800만평 녹화)

3) 북경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전략

① 공격적인 자동화 실시로 높은 효율 달성

○ 공장이 북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부지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했기 때문에 자동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음.

- 전 세계 현대차 공장 중 북경 공장의 자동화 수준이 최고
- 로봇 1대를 20개월 사용하면 투자비용을 다 뽑기 때문에,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효율적

○ 한국보다 북경 공장의 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전환배치, 투입비율, 작업시간 등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임.

* 투입비율의 경우, 한국에서는 노조의 생산계획에 따라야 하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잘 팔리는 차 위주로 생산 가능

<자동화수준 및 생산효율 비교>

	한국 아산공장	중국 북경공장
자동화 수준	(용접) 100% 로봇 (부품이동) 100% 로봇	(용접) 100% 로봇 (부품이동) 사람에 의한 수작업
	∵ 중국이 한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	
생산 효율	60% 미만(2차종 생산)	88~89% 정도(4차종 생산)
	∵ 한국은 노조 때문에 맨아워(man hour) 협상이 잘 안되기 때문	

②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홍보에 효과적

○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도요타,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음.

③ 한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품질 관리

○ 북경현대가 후발주자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반 진출한 한국 협력업체들의 역할이 컸음.

- 한국 협력업체의 높은 비중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

○ 특히, 한국 협력업체 중 70여 개사는 북경, 천진, 하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피가 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40km 내에 위치하고 있음.

○ 금액 기준으로 약 92%의 부품이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, 8%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.

- 생산비 중 80%가 자재비로 들어가는데, 이 중 90%를 한국업체에서 생산

④ 합자회사라는 특성: 협의 / 견제

○ 중국에 공장(회사)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회사와 합자회사 형태를 취해야 함.

○ 생산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고 동일하므로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거의 없음.

- 따라서 생산부문은 중국인 비중이 높은 반면, 기획, 구매, 생산 기술 부문과 같은 중요 부문에는 한국 주재원들을 배치

- 부장급 이상은 5 : 5의 비율로 동등하게 구성

○ 구매, 품질 등 애매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므로 중국 파트너와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음.

⑤ 국내 현대차 디자인을 현지에 맞게 응용하여 새로 디자인

○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 판매용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였음.

- 중국인들은 디럭스하고 번쩍거리며 내부가 밝고 외관에 장식이 붙어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므로 이런 성향을 반영

○ 디자인이 끝나면 중국 딜러,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품평회를 열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침.

마 주중대사관 간담회 참석

□ 개 요

○ 일 시: 2012. 6. 29(금) 19:00 ~ 21:00

○ 장 소: 중국 베이징 시내

○ 면담자: (주중대사관) 김영삼 상무관, 이상은 상무관보
(중국사회과학원) 최연우 과장

□ 주요 면담내용

1) 중국 경제 동향 (6월 현재)

○ 5월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.

- 물가 상승압력은 완화됐으나 향후 추이가 불투명
-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며 민간투자도 하락세
- 공업생산 증가율, 구매관리자지수(PMI)의 동반 부진
- 소비재소매판매(RS)의 지속적 하락으로 수출 및 투자부진 만회가 어려운 상황

○ 5월 주요 실적 발표(6.9) 앞두고 기준금리 예대 인하 결정(6.7)

- 중국-선진국 경제의 연계 심화로 글로벌 위기 영향이 예상보다 심화되자 경기하강 속도 완화 및 기업 금융비용 경감 차원에서 단행

2) 향후 경제 전망

○ 중국경제는 경착륙 우려 요소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큼.

- 2008년 4조 위안 재정투자의 부작용(공급과잉, 중복투자, 버블화)이 상존하며 2012년 들어 실물경제와 주요 지표 하락세 지속
- 그러나 정부의 선제적 정책 대응, '11년 하반기 이래 꾸준한 구조조정 진행으로 완만하나마 경기회복 기대

○ 대내외 복합적 악재의 일시적 집중으로 기업들의 위기감 증폭

- KOTRA 중국투자기업 경영상황 설문조사(5월, 142社)에서, 약 50%가 올 매출 증가율 10% 미만 응답
- 노동집약업종, 광둥성 등 수출중심지소재 기업일수록 위기감이 큼 → 내수전환이 생존열쇠
- 급속한 중국 이탈보다는 환경변화 적응 움직임이 우세함.

3) 국내기업 관련 현지 산업 동향

○ 시안시 반도체 공장 건설에 삼성전자가 70억불 투자 결정

○ 북경현대자동차 제3공장 준공으로 생산능력 100만대 가량 확보

○ 중국 정부에서 자국 내수시장을 키우려는 추세이므로, 한국의 고급소비재를 많이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

○ 최근 중국은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므로, 국내기업은 이들 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등의 납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